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 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 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 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재무팀 하지혜 사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듯한 지혜 님은 굿은일에 항상 먼저 나서주고, 어려운 일에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늘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지혜 님의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저에게 자양분이 되어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가 힘들고 처질 때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줘서 한 번 더 웃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팀원들을 우선으로 배려해 주는 인간 비타민이자 활력소 지혜 님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해 보아요! ♥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배운 것은 생각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칭찬하는 사람:류희정>

말 잘하고 친화력 좋은 소민 언니~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낯선 환경과 처음 보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고 말 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인사말도 건네주고, 말도 자주 걸어줘서 외롭지 않고 슬기롭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 덕분에 여러 친구와 많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말할 때 특별한 것이 있다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도 잘 해주고, 상대방을 엄청 편하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니 고마워~ 앞으로 더 화이팅하자!!

<칭찬하는 사람:윤현숙>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